



양림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관찰자의 시선' 전시 전경. 이세현 작가 사진 작업(왼쪽)과 유지원 작가 설치 작품 '연결된 구조'

# 세상을 감각하는 여섯 개의 방식

분더카머 그룹전 'The Observer's Eye'...양림미술관 10일까지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감각과 시선을 지닌 여섯 작가가 '관찰'이라는 행위를 각자의 작업 언어로 풀어낸다.

## 사운드·사진·설치 등 매체로 확장된 '관찰' 과정

지역 작가들로 이뤄진 분더카머 그룹전 '관찰자의 시선(The Observer's Eye)'이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는 '분더카머(Wunderkammer, 호기심의 방)'라는 개념 아래, 서로 다른 감각과 해석이 모이는 하나의 장면을 구성한다.

김자이 작가는 사운드를 출발점으로 한 드로잉 작업을 선보인다. 지난해 선보였던 '휴식' 관련 사운드 작업을 바탕으로 이슬람 사원의 기도 소리, 도마를 썬 소리, 타자기 소리 등

다양한 일상의 음향을 다시 듣고 이를 시각 이미지로 옮겼다. 작가는 소리를 듣는 관찰자의 위치에서 청각적 경험을 드로잉으로 전환해 보여준다.

유지원 작가는 건축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조형 작업을 선보인다. 하정음미술관 전시에서 선보였던 작업을 변형해 보이지 않는 공간의 구조와 기능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 지하 공간의 파이프, 창문 등 평소 인식되지 않던 요소들을 재구성해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고, 이

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이면을 드러낸다.

임용현 작가는 영상 작업을 통해 장소성과 시선의 관계를 탐색한다. 두 작품은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집중하고, 또다른 한 작업은 중세 기사들의 무기고를 모티브로 한다. 시간이 흐르며 기능이 사라진 공간이 현재까지 이어졌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상상하며, 물리적 힘을 저장하던 장소가 디지털적 의미로 전환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풀어낸다.

정승원 작가는 'W.M.(세탁기) 시리즈'를 통해 현대인의 삶을 은유한다. 세탁기 속에서 뒤섞이며 회전하는 다양한 형태의 세탁물은 서로 다른 개인의 삶을 상징한다. 각기 다른 존재들이 같은 구조 안에서 움직이며 변화하는 모습은 현대 사회 속 개인의 관계와 흐름을 상징한다.

이세현 작가는 옛 적십자병원 내부를 촬영한

사진 12점을 선보인다. 어두운 공간에 직접 들어가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관찰하며 촬영한 결과물이다. 작품은 의도적으로 작은 크기로 제작됐다.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작가가 공간에 들어가 처음 마주했던 시선의 거리와 긴장감을 관람 경험으로 확장한 방식이다.

이인성 작가는 주황색 점을 활용한 작업을 포함한 회화 3점을 선보인다. 일부 작품에는 점이 등장하지 않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혼자 무언가를 지속하는 사람의 모습이나 스스로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화면 속에 은유적으로 담겼다.

이처럼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매체와 방식으로 '관찰'이라는 행위를 재해석한다. 소리, 공간, 이미지, 구조를 통해 포착된 시선은 관람객에게 또 다른 관찰의 방식을 제안한다.

전시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진다. /최명진 기자

## 광주 여성 삶, 오월 기억으로 잇다

광주여성길 5·18 주먹밥 도보투어 오는 14일까지 선착순 참여 모집

광주 여성의 삶과 역사를 따라 걷는 길 위에서 오월의 기억을 되새기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오미란)은 오는 16-17일 열리는 '광주여성길 5·18 주먹밥 도보투어'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 여성의 삶과 역사를 조망하는 '광주여성길' 도보투어와 오월어머니집 주먹밥 만들기 체험을 연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도심 곳곳에 남아있는 여성사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지역의 역사와 의미를 체감한 뒤, 주먹밥 나눔 체험을 통해 5·18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광주여성길'은 재단이 2022년부터 운영해온 여성사 탐방 프로그램으로, 두후길, 백단심길, 흥단심길 3개 코스로 구성된다.

양림동과 충장로 일대를 중심으로 여성 인물과 역사적 공간을 연결해 광주여성 100년의 삶과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번 도보투어는 '두후길'과 '백단심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두후길은 양림동 일대에서 근대 여성교육과 여성 선교사의 삶을 살펴보는 코스이며, 백단심길은 3·1운동과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구간으로 구성된다.

각 코스는 약 1시간30분 소요되며, 전문 해설사가 동행해 여성사와 지역사를 함께 설명한다.

탐방 이후에는 오월어머니집으로 이동해 주먹밥 만들기를 체험한다. 다만 기상 상황이나 운영 여건에 따라 일정과 장소는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5인 이상 신청 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인 신청도 가능하나 동일 회차 참여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 진행된다. 행사는 이틀간 총 10회 운영된다.

오미란 대표이사는 "광주여성길을 걸으며 도시 공간에 담긴 여성들의 삶과 의미를 직접 느끼고, 주먹밥 나눔의 의미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ACC로 벨리곰 보러 오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인기 캐릭터 '벨리곰' 포토존을 운영한다.

이번 '벨리곰 포토존'은 오는 8월9일까지 약 3개월간 ACC 문화정보원 도서관 로비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벨리곰' 포토존은 높이 3m 규모의 대형 벨리곰(에어 펠런 형태) 1종과 높이 1.8m 크기의 중형 벨리곰(패브릭 소재) 3종을 비롯해 다양한 맞춤형 소품 등으로 구성됐다.

ACC는 지난해부터 방문객이 참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감 친화형 콘텐츠'를 지속 선보이고 있다. /최명진 기자

## 아이들의 생각과 감정, 시·그림으로 펼쳐진다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오는 8일까지 아동시화전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단장 최강남)은 오는 8일까지 광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 '2026 아동친화도시광주 아동시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와 돌봄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의견을 표현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아동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전시에는 광주지역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 아동들이 직접 창작한 시화 작품이 선보인다. (사진)



작품은 '아동친화도시광주 8행시 및 시화', '놀 권리', '내가(우리)가 행복할 때', '웃음'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일상에서 느낀 행복과 웃음, 바람, 아동 권리에 대한 생각이 작품에 담겼다.

전시는 아동 개개인의 다양한 감정과 성정의 이야기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자리로, 관람객이 아동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표현권과 참여

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강남 단장은 "아동들이 시와 그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전하는 자리"라며 "작품에는 함께 지켜야 할 아동의 권리와 행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